

(자유의 길)
줄리아스 레스터 글 |
로드 브라운 그림 |
김중철 옮김 |
64쪽 |
값 9,000원



《자유의 길》

자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일

낮은산 정광호_주관

먼저 이 그림부터 보자. 그림 옆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

차곡차곡 쌓여 있네.

관처럼 좁고, 관처럼 캄캄한, 그런 판자 위에 똑바로.

차곡차곡 쌓여 있네.

산 채로, 산 채로, 그렇게 산 채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은 사람이다. 살아 있는 사람... 그들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 일어설 수도, 돌아누울 수도 없다. 저기 짐짝처럼 쌓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불일도 누운 채로 보아야만 했어. 위에서 똥오줌이 내게로 흘러내렸고, 내 똥오줌은 밑으로 흘러내렸어. 냄새가 진동했고, 그만큼 증오도 커졌어.”

처음 이 책을 원서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위에서 말한 그림과 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무 주저 없이 이 그림책을 번역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아주 잠깐 이 책이 최소한의 상업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출판 환경에서 그림책은 취학 전 아이들의 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책이 지닌 무거움 탓에 자칫 시장에서 독자를 잃고 묻힐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작업자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책에 대한 열렬한 팬이 되었고, 독자들도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미덕을 알아보아 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틀리지 않았다.

그럼,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미덕은 무엇일까? 그 미덕은 아마도 글과 그림이 어떠한 느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흑인 노예의 삶과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느껴보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나 싶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은 분노를 상상해 봐.

그런 분노를 느끼기 위해 네가 꼭 흑인이 되어야 할 까닭은 없어.

그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야.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다른 사람의 상처와 분노를 상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

마음속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한 인간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마음으로. **■**

(수잔 서랜던 : 여배우 혹은 투사)
마크 사피로 지음 |
손주희 옮김 |
304쪽 |
9,800원



수잔 서랜던

《수잔 서랜던 : 여배우 혹은 투사》

배우 이면의 삶, 투사 수잔 서랜던 첫 평전

프로메테우스 신출일 대표

출판사란 딱지를 붙인 대장간을 운영하면서 순전히 기분대로 책을 내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그땐 판매부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금 사정이 괜찮고, 더구나 누구 한 사람 간섭할 이 없이 혼자서 운영할 때 가능한 얘기 일터이다. 운 좋게도 이 책을 선뜻 계약했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극중 캐릭터 탓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겠지만 오래 전에 본 <하얀 궁전>과 <텔마와 루이스>란 영화 속에서 수잔 서랜던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데다, 간간히 외신으로 전해지는 반골 기질 넘치는 그녀의 실제 삶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북스에서 그녀에 관한 책이 처음으로 출간되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내용도 검토않은 채 곧장 계약을 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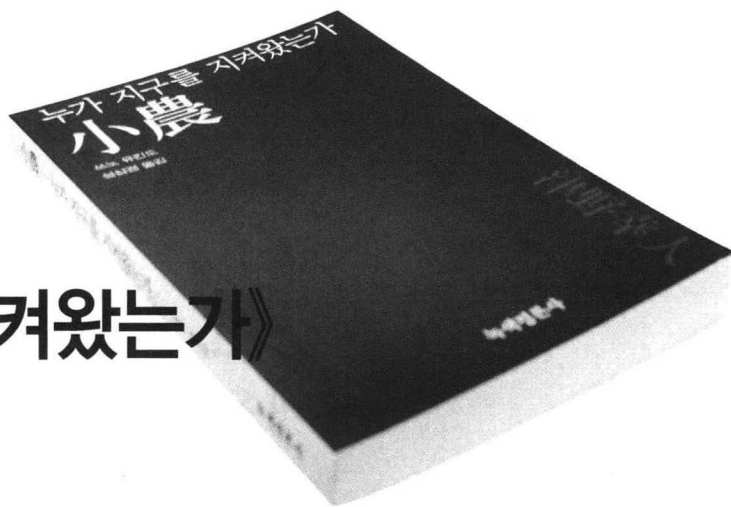
평전 전문작가인 마크 사피로가 쓴 이 책은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수잔 서랜던의 예술적인 열정과 함께 정치적인 열정을 연대기 순으로 다루고 있다. 작가가 왜 많은 인물 가운데 수잔 서랜던에 주목한 것인지 내용을 인용해 들어보자.

“서랜던은 대담한 세계관과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태도로 일관되게 살아온, 배우이기 이전에 우리 시대 보기 드문 한 여성이다. 요컨대 서랜던은 자신의 신념을 억지로 굽히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연하의 배우 팀 로빈스와의 오랜 동거관계는 사회의 금기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으며, 특유의 솔직한 태도로 관습적인 할리우드 사회의 분노를 사는 위험도 슬하게 무릅써

왔다. 이는 그 어떤 연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중요한 사회운동이라면 명목상의 출연일지라도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솔직담대한 기질은 번번이 할리우드의 부도덕한 면을 일깨워준 대신, 알게 모르게 그녀의 직업적 성공을 늦추기도 했다. 정상에 오른 듯한 시점 이후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배역을 얻기 위해 오디션을 받고 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수잔 서랜던에게 있어 자신의 이미지 관리나 명성 높이는 관심 밖의 일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폭발적인 존재, 즉 자연스럽게 교육된 확실한 선동자일 수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주의의 확실한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은 배우로서는 끊임없는 불화의 연속이며, 또 행동가로서는 마치 뜨거운지 알면서 불 속에 뛰어드는 이상주의자인 수잔 서랜던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통찰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야말로 미처 몰랐던 그녀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싶을 뿐이다. 덧붙여 사실상 원서의 문장은 예상외로 매끄럽지 못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출간 여부를 두고 꽤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번역은 곧 창작’ 과 다름아님을 새삼 확인시켜준 역자와 편집자의 노고 덕분이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드린다. **김민**

《소농-누가지구를 지켜왔는가》
쓰노 유킨도 지음 |
성삼경 옮김 | 212쪽 | 값 7,000원



《소농-누가지구를 지켜왔는가》

소농 小農 과 평화

녹색평론사 변홍철_주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을 위한 강제적 토지수용에 나선 국방부와 농민들 사이의 충돌로 연일 긴장이 끊이지 않는 대추리. 이곳 농민들이 그동안 감내해야만 했던 수난의 역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52년 미군 불도저들은 주민들이 잠든 시간, 세간을 쟁길 틈도 주지 않고 집을 허물고 논밭을 짓어졌다. 지금 대추리는 원래의 대추리가 아니라, 당시 미군에 의해 쫓겨난 주민들이 밀리고 밀려 가까스로 터를 잡고 일군 제2의 고향인 셈이다.

평택 농민들은, 《소농-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의 저자 쓰노 유킨도에 의하면 전형적인 '토착 소농' 들이다. "자급적 집약농업을 하는 농민", 좀더 자세히 말하면 "오랜 세월을 걸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지를 만들고, 그 토지에 열심히 작물을 재배해서 얻어내는 적은 잉여생산이 자손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농사법을 자손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 소농으로서의 생업문제의 중심과제가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며, 이것이 "가치체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평택 농민들의 절규는, 정치적 수사修辭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소농 본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다.

이러한 토착 소농들은 생존의 조건상, 침략이나 약탈,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자급(自給)적 삶을 살아왔다. 소농은, 지구 전체로 볼 때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토양)을 고도의 집중과 헌신으로 일구고 가꿈으로써,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환경으로 지켜온 주체

인 것이다. 근대화·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지구환경의 파괴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규모화·기계화된 농업과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농·대농조차도 사실은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조화와 다양성을 파괴해온 또 하나의 공범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집약적인 노동과 지역 순환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살피고 가꾸어온 '소농'의 삶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생존양식이다.

평택 땅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추방당하고 있는 소농의 운명은, 그러나 결코 평택에서만 의문은 아니다. 쌀 개방과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인한 이 땅 소농들에 대한 '확인사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과 국가권력의 연합공세에 의해 사실상 소농은 끊임없이 추방당하고 '살해'되어왔다(쓰노 유킨도는 이 책에서 소농을 국가의지에 의해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저 농민들의 절규와 저항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전쟁의 확산과 끊임없는 팽창의 욕망에 굴복할 것인가, 소농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존과 평화로 나아갈 것인가. 저 평택의 들판은 바로 우리 문명의 갈림길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인 것이다. 田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가사, 후대에 남을 만하다면!

아세이문화사 김은진 과장

의의였다. <출판저널>의 체제가 바뀌었나? 전통 학술서를 출간하는 우리 회사에까지 연락이 오고... 의뢰를 받자마자 떠오르는 책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였다.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는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사문학을 연구한 전 동국대학교 임기중 교수의 45년간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원전 정리 작업이 한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사문학을 통합적으로 정리했고,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가사를 널리 알리는 것도 가치있는 작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세이문화사가 아무리 상업성을 배제하고 출판을 한다 해도 21권의 책을 일시에 출간한다는 것은 제작비나 영업 면에서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랜 회의를 거친 결과, 후세에 남을 만한 책을 만든다는 자부심만으로 출간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책은 편집체제 단계부터가 고민이었다. 한문과 고어가 많아 편집체제를 잡는 것부터 난항이었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가사마다 주를 미주로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판을 뒤집는 것도 여러 차례, 이 체제 때문에 3교의 교정을 거치면서 일일이 쪽수와 차례를 확인하는 것도 일 중의 일이었다.

워낙 많은 양이기에 한 번의 교정 후 재출력까지 프린트 3개로 3일이 걸리는 일이었다고, 5명의 전문 교정자를 위해 회의실은 항상 원고로 파묻혀 있어야 했으며, 마지막 교정이 넘어와서도 몇 달을 전 직원이 밤샘 작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 끝에 책이 제작처에 넘어갔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것도 잠시,

각 제작처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미주 때문에 각 권당 파일이 200~300개로 만들어져 그 많은 페이지를 필름 작업부터 일일이 대조해 가며 출력해야만 했고, 인쇄도 양은 많지만 부수가 적어 찍는 시간보다 판을 가는 시간이 더 든다는 고충 등등...

인쇄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제본소에서는 원고를 실어가지도 않고, 독촉을 해서 작업에 들어갔나 싶어 확인을 하면 타 출판사의 책에 밀려 제작이 늦춰지기를 수 차례... 서울에서 제본소가 있는 일산까지 거의 출퇴근을 하며 독촉을 하고, 심지어 싸움도 불사해 가며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다.

책의 출간을 기뻐함도 잠시,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몰려왔다.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사란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학문이고, 전공자라 할지라도 요즘 같이 책을 구입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집을 권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판로는 도서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 책은 도서관마다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어깨가 축 처져 회사로 돌아오는 영업사원을 볼 때마다 소위 돈 안 되는 책을 출간해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 또한 감출 수가 없다.

그래도 막상 책이 출간되고 보니 제작할 때의 고충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학술서의 편집에 매달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젠 아세이문화사 사람이 다됐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